

코로나 확산에 겹친 폭염 취약층에 더 가혹한 여름

35도 불볕더위 10일간 예보

코로나 신규 확진자 크게 늘어
저소득층·노약자 등 피해 집중

장마가 물러가면서 낮 최고기온은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오는 30일까지 최소 10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 가족 폐사, 양식장 피해 등 폭염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서 물이 닳진 폭염으로 인해 저소득층,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유례 없이 가혹한 여름이 될 것으로 보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조치가 요구된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불볕더위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소나기를 제외한 비 소식이 없어 이달 후반부로 갈수록 더위는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영광 33.3도, 함평 33.2도, 광주 33.0도, 목포 32.8도, 순천 31.3도, 나주 32.6도 등이었으며, 광주와 순천,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등 전남 6개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나머지 전남지역은 폭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과 광주시, 전남도 등은 특히 21, 22일은 정제된 고기압이 더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까지 겹치면서 기온이 더욱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고, 가족 폐사 가능성, 농작물 햇볕 데임 및 병충해 발

생 가능성이 크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최근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12명,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최근 일주일동안 18명이 집중됐다.

바다도 심상치 않다. 계속된 폭염으로 득량만·함평만·가막만(여수)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15일 첫 고수준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첫 고수준주의보 발령 시점(8월 14일)보다 무려 한 달 앞선 것이다. 해수부는 "고수온이 지속되면 물속 산소량 부족으로 양식장 어류 집단 폐사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폭염이 코로나 19 유행 상황과 더불어 닥쳤다는 점에서 주거 빈곤가구, 노약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도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동과 모임, 접촉 등이 차단되면서 취약계층을 도우는 손길마저 사라지고 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 탓에 경로당, 마을회관 등 냉방설비가 설치된 곳을 노인 등 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폭염 대응체계 구축, 그늘막 추가 설치, 무더위 쉼터 확대,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 농수축산·산림·건설공사 대책 등 폭염 대책을 내놓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대급 폭염 피해를 제대로 막아낼 지 의문이다.

이날 새벽 0시 기준 전국에서는 127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에서는 25명, 전남에서는 9명이 나왔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66.35%에 해당하는 848명이 집중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세균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할 것”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사진) 후보는 20일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산업화 측면에서 뒤진 측면이 있다. 민주화의 성지를 뛰어 넘어 산업화에도 뒤지지 않는 광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에 대해 “그분과는 성장 배경이나 개인적인 캐릭터나 (모두 다르다). 정치 이전에 저는 경제인, 그분은 언론인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이나 노선이나 정당에서 활동이 매우 다르다. 이 후보와 저와는 그런 접합점이 다르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완주할 것이고 결국은 국민과 시민이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세심하게 판단해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주면 정권 재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이 내거티브로 흘러 안타깝다. 대선 후보는 티끌만 한 도덕적인 흠결 하나라도 나오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확대 재생산해서 정치적 타격 주는 게 지금 현실이다. 경선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덕담으로 가볍게 다루면 경선 이후 독이 된다.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예선에서의 욕에 티와 의혹도 국민의힘과의 본선에서 핵폭탄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과거에도 민주당 경선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며 “예비경선 마치면서 큰 변화 있다. 판이 흔들리고 있다. 경선 끝나면 거의 두 달 반 남았는데 그 전에 여러 변동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홍빈 대장이 지난 달 30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사진. 김 대장은 고소 적응을 위해 브로드피크 베이스캠프를 떠나 캠프1(5600m)을 구축한 뒤 등정 소식을 전했다. 그는 “고도 900m를 올라서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알파인 스타일로 등반한다는 외국팀들은 캠프2로 진출을 못하고 캠프1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우리팀이 루트를 개척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빈 페이스북>

김홍빈 대장 구조 ‘애타는 골든타임’

날씨 안 좋아 구조헬기 못 띄워

러시아 원정대 구조 중 추락한 듯

“많이 춥다” 구조요청 마지막 통화

광주시 등 사고대책·지원단 구성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김홍빈 대장을 찾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지 악천후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주시와 주파키스탄 대사관 등에 따르면 김 대장이 고산에서 실종된 상황이라 헬기 수색이 매우 중요한데 현지 날씨가 좋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상표 주파키스탄대사는 “추락 지점 좌표 추정치를 확보했고 사고 지점을 잘 아는 현지인도 있는 상태인데 헬기가 뜨지 못해 안타깝다”며 “기상 상황이 나아져 구조 헬기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파키스탄과 중국 당국에 수색 헬기 등 구조대 파견을 요청했고, 현재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장은 앞서 현지시간 18일 오후 4시 58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크레바스(빙하의 갈라진 틈)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 대장은 조난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 발견된 후 주마(등산기)를 이용해 올라가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장은 중국 쪽 절벽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대장이 국내의 지인에게 위성 전화로 구조를 요청하면서 “주마 2개가 필요하다. 무전기가 필요하다. 많이 춥다”는 말을 남겨 극한의 상황에 처한 그의 절박함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대장은 베이스캠프와 통신장비를 켜져 국내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김 대장의 여정을 함께하던 네팔 셰르파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파키스탄으로 입국할 수 없어 홀로 완동에 나서야 했던 김 대장은 “정말 등반다운 등반을 하겠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산악연맹, 대한산악연맹, 대한장애인체육회,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시체육회는 (사)광주전남등산학교,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과 함께 사고대책위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했다.

대책위와 지원단은 코로나19로 구조대 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지 대원들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관리, 현지 요청사항 지원과 가족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외교부에서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협력해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시 수습대책위는 중앙대책반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조대 지원을 위해 추가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실종지점이 브로드피크 7900m 정상 부근이어서 국내에서 구조인력을 파견하면 고산지대 적응훈련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광주대책위는 최대한 현지원정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렉스스토퍼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렉스스토퍼 : 02-541-9270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